

#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영화읽기]

김 상 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 1. 시작하며

영화는 대개 좋아하는 매체이다. 왜 좋아할까? 아마도 오락으로써 영화를 즐기는 일이 많아서 이리다. 그렇다. 영화는 처음부터 오락거리였다. 그때까지 눈앞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던 말, 노래, 춤, 회화, 조각, 건축물 같은 예술과는 달리 영화는 스크린에 비치는 빛을 통해 실재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허상으로써의 예술(매체)이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직접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고, 영사기를 통해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야만 가능하다(이중의 부재)는 점에서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영화 매체는 사실상 그 탄생부터 드러난 셈이다. 처음 나타난 영화는 관객들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눈속임으로 여겨졌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현실 위에서 움직이는 대상들을 보며 관객들은 화면 속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감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반응했다. 보다 손쉽게 관객을 설득하고 흥분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화는 혁명을 위한 홍보·선동용 자료로도 활용되었고, 세월이 지나며 영화의 극적 요소와 정서적 가능성을 깊이 파고들면서 사업으로의 자리매김도 굳혀져갔다. 그러나 이런 영화의 활용과 확산은 약간의 기술만으로도 관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순수하고 강제적인 영화만의 매체 특성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영화는 연출된 내용과 편집, 촬영 기술로 우리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피할 수 없는 비판을 들어와야만 했고, 필름에서 디지털로 주도권이 넘어간 21세기에도 그 비판은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다투며 이어져왔다. 지금도 황당한 얘기들로 버무린 과도한 액션과 무엇이든 부수고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가득 찬 커다란 스크린에 사람들이 몰린다.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들도 얼추 그렇다. 흔히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즐

기기(수동적 소비태도)에 그만인 매체가 영화이다. 그런 한편, 영화는 또 다른 기능도 한다. 나머지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문학의 새로운 버전)를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하기도 한다. 나는 이 점을 마음에 새겨 살피고 있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IKY)는 질문하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영화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라 온다. 올해는 42개 나라 174편의 영화로 관객과 만났다. 여기엔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만든 영화들도 64편이 함께 하였다. 영화를 읽고 쓸 수 있는 경험이 한 때에 모이는 것이다. 즐겁고 신나는 영화보기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기회이다. 그 경험이 일상에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기운이 되길 소망한다. 더불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영화였기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편수는 적지만 의미 있는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다. 좋은 책을 권하는 것처럼 좋은 영화를 권하는 교육행정이 되었음 한다.

##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와 ‘영화읽기’

### 가. 영화읽기

영화를 비판적(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일은 보는 눈길에 따라 다름이 있기에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자는 운동은 이미 영화감독들이 도드라지게 힘주어 해 왔었다. 마야 데렌<sup>1)</sup> 같은 초기 실험영화 감독들도 편집 기술

---

1) 마야 데렌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시라큐스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녀는 YPSL(젊은 사회운동가 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엔 사진작가로 잠시 활동하다가 안무가 캐서린 던햄(Katherine Dunham)의 비서가 되어 그녀의 연습실에서 함께 일했다. 이 경험은 그녀가 댄스 필름의 창시자로 거듭나는 데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다.

1940년대 초, 마야 데렌은 두 번째 남편 알렉산더 해미드(Alexander Hammid)와 함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6mm 카메라로 대표작인 <오후의 올가미>(1943)를 연출한다. 직접 출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던 마야 데렌은 실험적 아방가르드 필름연구로 그치지 않고 47년, 아이티로 건너가 민속 필름에 대한 연구로 그녀의 작업 방향을 바꾸었다. 부두교의 전통춤과 노래에 심취하여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던 그녀, 그러나 1961년 44세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이후 그녀의 세 번째 남편 테이지 이토(Teiji Ito)가 이 촬영분을 편집하여 영화 <디바인 호스맨>(1981)을 완성한다.

“헐리우드가 배우의 립스틱에 쓰는 비용으로 나는 영화를 만들어요.” 라고 말했던 마야 데렌,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력에는 막힘이 없었던 그녀는 선구적 독립영화인이며,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선두주자이고, 댄스필

을 활용해서 장면을 만들어내기 보다 연속하지 않는 숏을 집어넣는 따위의 화면들로 이미지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영화를 만들었다. 60년대에 일어났던 새로운 영화운동인 누벨바그<sup>2)</sup>를 처음으로 내어 놓고 주장한 프랑스의 영화 작가들 역시 갑작스럽게 장면을 전환하는 점프 컷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영화 작가들과는 별개로 관객들에게 있어서도 영화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감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르러 미칠 수밖에 없다. 영화 위에 씌워진 편집과 기교, 일시적 정서를 걷어내고 그 속의 본질, 작가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영화를 더 영화답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대로의 영화를 마주치면서 쉽게 지나친 영화의 구멍 또는 시사점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화가 무의식적으로 반영한 폭력, 가치, 이념들을 파악하고 이에 직면하면 사회 전반의 무의식, 스스로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기’ 이전에 ‘읽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책을 읽을 때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모두 작품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작품이 전해주고자 하는 느낌과 감상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책은 글을 어떻게 쓴다 해도 일단 글자가 종이 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도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반면에 영화는 편집을 통해서 장면을 구성하는 숏 사이의 틈을 지울 수 있고, 그럼으로써 최대한 숏 사이의 간극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숏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비교적 힘들게 느껴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영화를 ‘읽는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영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

---

름의 창시자이다. 1986년 미국영화협회(American Film Institute)는 ‘마야 데렌상 (Maya Deren Award)’을 제정, 매년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행보를 걷는 영화인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2) 영화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경향.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이란 뜻. 미국에선 뉴웨이브 [1]또는 프렌치 뉴웨이브라 부르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기존의 무성영화들이나 유성영화를 보아온 세대들이 새롭게 시작한 저항이라는 뜻이다. 말은 이렇게 해도 야외 촬영하는 건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에 영향을 받아왔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사르트르와 알베르 까뮈의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전통과 관념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존재에 관심, 자유를 빼앗는 것과의 투쟁, 인간성의 해방 등이 특징이며 이야기 구조의 느슨함과 개방성, 즉흥, 야외촬영, 저예산 등등 파격적인 시도가 많았다.(나무위키)

기 위해서는 일단 영화를 읽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글자를 읽은 다음에 글을 이해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솜을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펀트><sup>3)</sup>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1999년에 벌어진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다.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에 대한 감독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안에서 할 일을 하는 학생들의 걸음을 담담하게 따라가기만 한다. 변함없는 시선으로 학생들의 뒤를 쫓는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인물의 곁에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쉽게 지나쳐온 폭력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총기와 수류탄을 들고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비춰줄 때부터 사건을 현장 속에서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된다. 영화가 마무리되면 관객은 ‘사건의 원인이 존재할까’와 같은 의문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대한 물음, ‘감독은 왜 이 장면을 선택하고, 편집을 이렇게 했을까’ 같은 의문점을 던지기에 이르게 된다.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받는 충격적인 느낌과 위기감이 영화를 보는 행위의 결과물이라면, 영화가 끝난 후 갖는 의문에서 비롯된 장면 선택과 편집에 대한 의문이 영화를 읽어 나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영화는 영화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많은 탐구와 영화 그 자체의 가능성을 통해서라도 영화는 영화를 보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 있는 우리를 진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편견은 판단에 관계없이 존재를 틀로 규정하고 그 틀 안에서만 대상을 바라보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영화 외부와 내부의 편견을 없애고 영화를 가장 영화답게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현실에 대해 성찰해야만 한다. 극영화 작가들은 영화를 텍스트 장치로 만들기 위해 장면 사이에, 좁게는 솜

---

3) 샌트 감독의 죽음 3부작 중 두번째 작품.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마침 같은 사건을 소재로 한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볼링 포 콜럼바인이 2002년에 나와서 이래저래 둘이 비교되기도 했다. 스토리를 중심으로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인물들 몇 명의 일상을 교차해 보여주다가 막판에 총기 난사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구성을 취하였다. 최종 각본 구성과 촬영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촬영 중 즉석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덕분에 학생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들로 게이 배척 풍토, 범인들의 나치즘 숭배, 그들이 플레이했던 게임, 왕따, 마틸린 맨슨의 음악, 부모의 무관심, 사이코패스 등이 거론되곤 했는데, 이 항목들 중 일부가 영화 속에 그대로 차용되었다. 이후 이 영화에 따른 모방범의 위험 때문에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일어나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가 친구와 영화의 총기난사 부분만 본 사실도 존재한다. (나무위키)

사이에 위계 관계를 형성해 왔다. 어떤 평론가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화는 본질적인 허구의, 허상의 매체라고 비판해 왔다. 우리는 이렇게 여태껏 영화에 썩워져 온 기술적, 외부적 조작을 걷어내고 영화를 마주해야만 한다.

## 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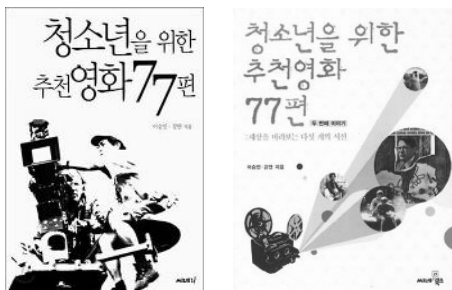
어떤 영화를 함께 볼 것인가? 대부분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고를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영화는 무엇일까?

1. 최신작 - 주로 학생들이 추천 함
2. 액션물 혹은 코믹물 -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생각해야할 부분
3. 그냥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재미있다고 하는 영화

위의 요구대로 영화를 고른다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얻기 어렵다. 물론 충분히 비판적 영화읽기를 한다면 좀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좋은 영화를 추천받는 일은 쉽지 않지만 BIKY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활용하는 사례가 공유되길 기대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영화들을 제목만 알면 구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영화들은 자막이나 우리말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지만 자막도 큰 힘들이지 않고 구할 수도 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에서 진행하는 영화읽기에는 대부분 BIKY에서 상영되었던 작품 중에 저작권 협의를 마친 작품들을 추천한다. 이때에도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제공된 줄거리를 보고 결정한 후 실제 영화 속의 장면들을 보고 걱정을 드러내는 선생님을 어찌다 만난다. 그러나 영화읽기로 한 바탕 토론이 있고나면 우려를 걷게 된다. 영화 속 장면을 따라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판적 읽기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긴다.



“청소년을 위한 추천 영화 77편“ 1,2, 2010, 2013년/이승민, 강안 지음/씨네 21

### 3. 친구는 서로 돕는 것



완두콩 배의 롤라 : Lola on the pea / 독일 / 2014 / 90분

주요 인물 : 롤라 / 레빈 / 줄름젤 / 쿠바르트 / 쿠르트

감독/각본 : 토마스 하인만, 아네트 미에스바

원작 : 완두콩 위의 롤라

아네테 미어스바 지음 / 김완균 옮김 / 슈테파니 하르예스 그림 / 별천지 / 2011





롤라 역 배우 타베아 한슈타인

## 가. 쿠르드인

쿠르드인(쿠르드어:Kurd, 페르시아어:کورد)은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 동남부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이 접경을 이루는 약 30만 km<sup>2</sup>의 산악지대인 쿠르디스탄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이다.

인구는 약 3천300만 명으로 독자적인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民族) 중에서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중동에서는 아랍인, 페르시아인(이란인), 터키인의 다음으로 많다.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교 수니파에 속한다. 언어는 인도유럽어족 이란어파에 속하는 쿠르드어를 독자 언어로 사용한다. 주된 생업은 목축으로 중동 외의 다른 민족과 같이 유목민으로서 생활해 왔다. 아이유브 왕조의 시조인 살라흐 앗 딘(살라딘)이 쿠르드인이다.

쿠르드족의 거주지인 쿠르디스탄은 중세부터 근대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유지한 오스만 제국에 있었지만,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전한 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의적인 국경선에 의해 분리되어 쿠르드족 전체 인구의 45%는 터키에, 24%는 이란에, 18%는 이라크에, 6%는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적 정치 세력이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4개국 모두 이러한 요구를 탄압하고 심지어 쿠르드족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까지 자행했다.

## 쿠르드족 거주 지역



(2015년 자료)

### ㉠ 레빈의 가족

- 
- 
- 

### ㉡ 우리나라의 이주민

- 
- 
- 

### 나. 집단 따돌림

- 
- 
-



다. 친구

- 
- 
- 

라. 독일 사회

- 
- 
- 

바. 명대사

- 
- 
-

#### 4. 증오보다 사랑을 배우는 게 더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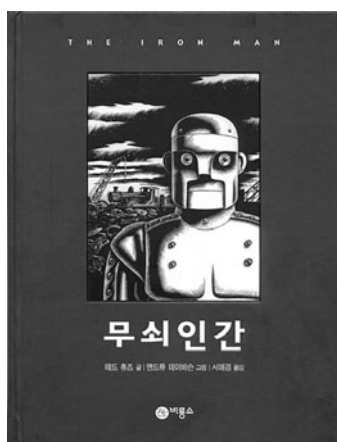
아이언 자이언트 : **The Iron Giant** / 미국 / 1999 / 87분

주요 인물 : 호가스 / 켄트 맥슬리 / 딘 맥코핀

감독/각본 : 브래드 버드, 팀 맥캔리즈

원작 : 무쇠 인간 **The Iron Man**

테드 휴즈 지음 / 서애경 옮김 / 앤드류 데이비슨 그림 / 비룡소 / 2003





## 가. 무기/전쟁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 본디 25년의 기한을 가진 조약이었으나,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원래는 이 조약으로 인해 핵보유국은 기존 5개국(미, 러, 영, 불, 중)으로 동결되었어야 했었다. 그러나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자체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인도나 파키스탄 등 아예 조약에 가입 않고 핵무장을 강행하거나, 이스라엘처럼 초강대국의 후광을 입고 비밀리에 제조하거나, 이란처럼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그냥 씹고 핵개발을 추진하거나, 혹은 북한처럼 가입하고서도 몰래 핵무기를 제조하려다 들킨 뒤 탈퇴하는 등등,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북한의 핵무기 /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 
- 
- 

㉡ 우리나라는 왜 가입해 있는가?

- 
- 
- 

나. 슈퍼맨/우리 주변의 슈퍼맨은?

- 
- 
- 

다. 친구인가 적인가?

- 
- 
-

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경고하다!

-  
-  
-

바. 명대사

-  
-  
-

“특정한 피부색이나 종교에 대한 증오를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증오는 배운 것이지요. 증오를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증오보다 사랑을 배우는 게 더 자연스럽지요.” 만델라

## 5. 상대적 우월감은 상대적 박탈감



장강7호 : 長江7號 cj7 / 홍콩 / 2008 / 88분

주요 인물 : 초우 / 디키 / 위엔 / 조니 / 패니

감독/각본 : 주성치, 곡덕소



가. 가난

-  
-  
-

나. 집단 따돌림

-  
-  
-

다. 우정

-  
-  
-

라. 명대사

-  
-  
-

욕망과 꿈의 차이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이 당신을 괴롭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욕망'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이 당신을 또한 설레게 한다면 그것은 '꿈'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 행복한 / 부유한 / 뛰어난 이유로 행복하다면  
그 기쁨은 '나보다 더'를 만나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

## 6. 나와 다른 너, 그래서 친구



오스카의 아메리카 : Oskar's America, / 노르웨이 / 2017 / 79분

주요 인물 : 오스카 / 레비 / 헬메르 / 이사벨  
감독/각본 : 토르핀 이베르센





가. 오스카가 꿈꾸는 장소 미국

- 
- 
- 

나. 오스카 주변의 어른들

- 
- 
- 

다. 레비와 백마

- 
- 
- 

라. 대서양을 건너다

- 
- 
- 

마. 명대사

- 
- 
-